

#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단기 전략계획  
ARKO · 비전 · 2010





# 소망의 나무를 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을 선포하며

저는 오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름으로 “예술을 통한 창의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 열린 사회 구현”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발표합니다. ‘ARKO 비전 2010’의 이 선언은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우리의 믿음 위에서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의 소망을 밝혀 드러냅니다. 우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발족한 이후 6개월 동안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며 모색하여 우리의 뜻으로 모은 이 비전은 ‘활기찬 예술 현장’ ‘삶을 채우는 예술’ ‘미래를 여는 예술’을 그 핵심 가치로 가름했습니다. 여기서 12가지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32개의 핵심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사회가 예술 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 예술 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가 구현되도록 우리의 지혜와 열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뜻에는 예술과 문화야말로 경제 정치 사회 과학 모두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가치라는 우리의 믿음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고 뒤처지고 괴롭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왔음에도 우리에게 꿈을 꾸는 예술이 살아 있고 앞날을 바라보는 문화가 움직였기에 오늘날과 같이 힘차고 넉넉하고 희망 있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에 이르기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예술을 창조하는 자유와 문화를 일구는 열정이 우리 사회와 나라를, 우리의 삶과 정신을 앞으로 더 밀어주고 더 높이 끌어올리는 창의와 진보의 원천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문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삶을 보다 성숙하게 진전시켜주리라는 또 하나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장과 큰 발전을 이룩해왔고 지금 그 성과들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성장과 발전의 성급함이 우리의 정신을 곱돌게도 하고 마음을 외지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술이야말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알차게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과

이해와 예의의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자산이며 그것이 우리를 세련된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럼으로써 우리의 사회는 다양한 지향으로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정신적 가치는 활기차게 뻗쳐 자라고 그것의 예술적 문화적 성취는 화려하게 꽃피어날 것입니다. 이 힘있고 아름다운 사회는 우리의 정치경제적 삶을 다시 활달하게 키우고 우리의 문화예술을 더욱 싱싱하게 피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예술과 힘찬 문화에서 출발하여 더 높은 층위에서 새로이 자유로운 예술과 힘찬 문화를 만들어내며 우리의 성숙한 삶을 품위 있는 모습으로 올리고 창조적 미래로 밀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늘에 자부심을 안겨주고 우리의 앞날에 희망을 달아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21세기는 이렇게 맞아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자유로운 예술을 통해 창의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풍요로운 예술 작품을 통해 삶을 성숙하게 향상시키는 것,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통해 사회를 열어가는 것, 이것들은 새로운 세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간적 공동체적 삶을 꽃피우며 앞 세기와는 또 다른 IT, BT의 디지털 문명 시대에 어떻게 교양높은 시민문화를 고양할 것인가의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 양상과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자유와 창의, 열린 정신과 품위 있는 삶의 진정성은 결코 달라질 수 없을 것임을 이 자리의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미래의 삶을 위해 “예술인과 함께하며 모두에게 신뢰받는 예술 위원회”가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거듭 다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봄날, 우리는 미래를 향해 자라날 나무를 함께 심음으로써 그 다짐의 살아있는 표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나무는 우리의 문화와 예술의 성장과 함께 자라나 오늘의 우리의 뜻과 소망을 증거할 것입니다.

2006년 4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병익

# 예술은 세상의 주변지대가 아니라 심장부에 속한다

서문

##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지상의 풍경은 나날이 문화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복개하천이 복원되고 육교가 철거되며, 개발의 자투리로 취급되던 공터들이 생명의 숨통을 여는 도시문명의 환풍기로 다시 태어난다. 시장에서는 문화상품과 지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며, 부의 생산과 유통도, 상품 광고나 사회적 계몽도 문화적으로 기획된다. 지난날 그토록 뜨거운 열정을 불렀던 정치적 해방과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들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발전'이라는 말도 경제성장을 뜻하던 차원에서 '문화적 성숙'을 의미하는 쪽으로 빠르게 수정되는 중이다. 정치나 경제의 하위영역이던 문화가 어느새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적 실천을 담는 형식이자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문화의 세기를 앞장서 준비한 사회이며, 문화강국이 되려는 의지도 높다. 전통적으로 문화 숭배 사회인 데다 일정한 산업적 성취를 이룬 후에도 문화산업의 육성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천민성'과 '몰가치'의 극복을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놓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나라가 문화적 낙후의 증상을 앓는 역설적인 현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돌이켜보면, 정부 수립 후 도합 아홉 개의 정권이 출현하여 정치 개혁, 부패 청산, 경제 발전, 빈부격차 해소 등을 외쳤지만 그것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일에서 오직 줄을 잘 서서 노른자를 먼저 차지한 자, '장미의 정원'을 먼저 선점한 자만이 최상의 선이고 도덕인 것처럼 돼버린 '결과 만능주의' 앞에서 질서와 윤리를 준수하며 밑바닥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시민들은 홀로 서 있다. 개혁이 만일 절차나 제도의 손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 사건이기보다 창조성과 지속성이 살아 있는 문화적 과정이어야 한다. 통치의 문화적 차원이 배제되어 버린 건조한 정치적 계몽주의가 어떻게 국민대중의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인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화가 어떻게 해서 사회 발전의 근거가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국민적 논의가 너무도 부족했다. 한국의 정치 및 공공 논의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조급하고 과도한 정치적 경제적 구호 앞에서 무참하게 묵살되곤 했다. 국가발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특히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인 예술의 역할을 탐구, 평가, 확산하려는 까다로운 접근방법이 회피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오늘 감히 문화적 성장의 원천이 예술에 있음을 선언하며 그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 예술은 세상의 주변지대가 아니라 심장부에 속하는 것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적 관점의 결여가 분단 극복을 비롯하여 국가적 운명과 장래를 결정짓는 모든 과제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삶의 환희와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성된다. 만약 전쟁이 나면 누군가는 파괴 비용과 건설비용을 벌게 되지만 누군가는 삶의 중요한 실체들을 잃게 된다. 그 실체 하나 하나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인류로 하여금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예술에 의해서 지켜져 온 것이며, 예술과 함께 성장했고, 예술에 의탁하여 훈련되는 것이다.

예술은 세계를 해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를 제공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예술이 위축되면서 남긴 후유증이 있다면 그것은 '추상적 가치의 붕괴'일 것이다. 추상적 가치가 붕괴된다는 것은 낱말의 개인들이 하나로 묶여서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운명을 지탱하는 꿈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공동의 가치 지평을 잃은 사회는 그 속의 개인들이 꿈과 이상이 살아 있는 생애를 살려고 하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궁핍하고 추해지게 만드는 야만을 경험하게 만든다.

또한 예술은 사회가 갈 곳을 예비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누구나 부의 습득만이 삶의 목적인 듯이 살고 있지만, 부가 저절로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부가 애오라지 또 다른 부의 증식을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소비를 통한 하급의 욕망을 해소하는 기회의 범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토대로 작용하는 가치관을 확보했을 때에야 비로소 소비로부터의 소외가 삶의 소외로 이어져버리는 몰가치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분명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의존할 수 있는 개인 자산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예술은 삶을 이해시키고, 세상살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고, 범죄와 폭력의 질서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는 길이다.

그리고 예술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의 전망에 개입한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다. 우리의 내면세계, 즉 출생, 삶, 사랑, 죽음, 고통, 기쁨, 비참함, 공포, 안도, 성공과 실패의 세계 또한 나름의 발명자와 개척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예술이요, 위대한 예술의 힘을 경험한 이들은 비록 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감 외에 또 하나의 육감을 얻는다.

상처의 과잉과 꿈의 빈곤으로 시달리는 사회를 무엇이 구원할 것인가 까닭에 우리는 거듭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실업자들 속에서도 예술을 이야기해야 한다. 거리에서 굶주리는 부랑자들을 보면서도 예술을 이야기해야 한다. 방황하는, 불이익당하는, 버려져 있는 모든 약자들 속에서도 예술을 이야기해야 한다. 부유한 이들도만이 예술을 향유하는 것만큼 심각한 양극화가 어디 있는가. 예술 활동은 한없는 소비로

보이지만, 단순히 대중이 일하고 세금을 내고 난 후에 기분전환으로 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우리가 완전히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시장경제는 예술이 스스로의 힘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찾고, 독서와 음악과 무용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창의적 사유를 훈련하며, 그것을 또 다른 재부의 생산에 이용하지만, 누구도 사후에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아니, 예술이 사회에 안긴 창의적 사유의 제공자를 누구도 구별해낼 수 없다. 그래서 '시장실패'에 빠지는 예술에게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남길 바라는 것은 예술이 예술이기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본디 '세계를 향한 개인의 고독한 외침'이었던 예술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하다보면 자꾸만 오락과 유희의 세계로 이탈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한, 사회는 부를 늘리기 위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예술은 그러한 사회를 의미 있는 것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부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 예술적 낭비의 정당성은 바로 이 '사회를 구원하는 힘'에 있는 것이다.

### 앞으로의 결의

2005년 9월, 참여정부는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진흥'이라는 어휘가 사라진 자리에 '위원'이라는 어휘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변화는 크다. 그것은 우선, 제도의 성격을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바꾸었다. 그에 따라 예술현장이 '행정의 대상'에서 '동시적 주체'로 승격되고, 조직의 위상도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에 대한 관리처'로 자리매김 되었다. 조직의 역할은 "시혜자에서 매니저"로 변하고 있으며, 사업의 방향성은 단순 기금지원 방식에서 환경조성 방식으로 재조정되는 길을 밟는 중이다.

우리는 이것이 지난 몇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통되게 약속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예술정책"의 실체요 필요조건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조건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술을 성장시키는 힘은 예술의 내부에서 솟구쳐 나온다. 나무가 자라면서 줄기를 뺏는 것을 외부의 그 무엇이 조절하거나 조종할 수 없듯이 예술 역시 공권력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는 자기를 지탱해주는 사회를 위하여 예술의 전개과정, 미학적 엘리트의 형성, 예술경향들의 분화와 예술현장의 지형도를 검토,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 시대의 예술을 번영으로 이끈다.

바로 이와 같은 충분조건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예술을 국민의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계획과 비전을 내놓는다. 국민 다수가 예술의 능력을 경험하고 창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된 안을 구상하여 제출할 것이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뜻있는 기업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할 이웃들, 여러 예술가와 단체, 문화 시민이 우리의 이 뜨거운 노정에 함께하기를 요청한다.

2006년 4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동